

승리의 진로, 필승의 향도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새해의 진군길에 펼쳐나선 공화국 각지 인민들의 열의는 비상히 양대되었다. 모두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위대한 실천강령을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더 큰 기적과 승리를 안아올 일념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과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열의로 들끓고 공창, 기업소들에서는 년초부터 생산직장 양이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선들로 세멘트를 실은 열차들을 련일 떠나보내고있으며 풍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대상설비생산을 박력있게 추진하고있다. 또 황해북도도 남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는 새해 첫날에 많은 량의 과일을 지원하여 강철전선을 힘있게 고무하듯이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더 많은 비료와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어느 일터를 가보나 모두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신심과 활력에 넘쳐 중산투쟁의 불길에 세차게 지펴나가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새해 정초부터 온 나라에 승리의 신심이 가득 차넘치고 모든 일터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는데는 옹호와 정확하고 투쟁목표를 제시해주고 그 실현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공화국인민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의 길로 곧바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주체조선의 백성의 비결이다.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소동에 대처하여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생결단의 길에서 부국강병의 대업이 이루어지고 공화국인민들은 영연히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사회주의건설을 확실성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또 격변하는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중요회의들을 소집하시고 공화국이 나아갈 명확한 투쟁방

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예외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언제나 담보나 침체를 모르고 앞으로만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그것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러 위험천만한 자연재해지역들을 찾고찾으시는 그이의 위대한 헌신의 길에서 재해지역들에 훌륭한 새 마을, 새집들이 일떠서 인민의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드리웠던 그늘을 가시여주고 행복의 웃음이 강산에 차넘치게 되었다.

지난해 공화국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변과 승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적이 승리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승리의 길로 확실성있게 이끌어가는 길의 의지를 지니시고 지난해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그

리고 그 실현을 위하여 련이어 열린 중요회의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이렇듯 공화국인민들에게 하루 빨리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불문불류의 헌신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 공화국인민들은 사상초유의 대단과 위기가 겹쳐지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도 끄떡없이 안전한 수출을 늘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게 되었으며 방대한 대건설과제들을 박력있게 추진하여 공화국의 발전상과 지력을 크게 파시하였다.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기본적으로 계속되고 삼지연시우리기 3단계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지방건설의 본보기가 마련되었으며 검덕지구의 수천세대 살림집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함경남도도 함경북도의 큰물피해복구가 원만히 진행되었다.

또한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는 속에 2년분,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수백명의

혁신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온 나라에 집단주의열풍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쳐나가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시면서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는 새년도계획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지난해 12월말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강령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침을 받아안고 회의에서는 올해의 투쟁과업과 새

로운 농촌건설강령의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들이 심도있게 토의되고 한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게 되었다.

진정 공화국인민들에게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강력히 인도하는 항도적투쟁방침, 전진과 혁신의 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고 새 세계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올해의 진군길이 시작부터 활력과 기백으로 차넘칠수 있는것이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 속에서도 2021년에 빛나는 승리를 거둔것처럼 새해 2022년은 더 큰 승리로 공화국력사에 길이 빛나게 될것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신것은 모두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고 그이께서 결심하신 무조건 현실로 꽃피게 된다는 믿음을 안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올해에도 세상을 놀래우려는 눈부신 기적과 승리를 제손으로, 제힘으로 또다시 안아올 열의를 안고 진군의 발걸음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백명일



3대혁명을 동력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서 진보와 락후가 병존하는 불균형적, 비전형적인 발전을 종지부를 찍고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을 다같이 고르게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자립, 자존으로 변형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구현해오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토선을 계속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의 시대를 열어놓을 위대한 구상을 펼쳐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고전적로작들에서 3대혁명토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백성의 기치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로동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1월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진자대회를 소집하되 꼭 하고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서한에서 그이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나오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이 운동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위력한 무기로 내세워주시었다.

또한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길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투쟁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이 운동을 벌리는데서 나라나고있는 련함을 극복하고 이 운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시대와 사

회주의대건설전투시기의 집단주의 정신을 더욱 승화시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차 3대혁명선진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3대혁명토선을 순결하게 계속하고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하여 가까운 앞날에 자립, 자존으로 변형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는 것이 공화국의 결의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는 3대혁명토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장구한 투쟁의 결과로써 도래한 력사의 분수령인 동시에 보다 높은 단계의 3대혁명으로써 이룩될 발전의 새시대이라고 밝혀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이었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3대혁명을 새로운 높에서 힘차게 다그쳐야 할 시대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금처럼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직장과 작업반을 단위로 벌일것이 아니라 시, 군, 련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사회적운동,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사상과 토선을 제시하시었다.

이 로선은 공화국에서 벌리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성격에도 맞고 전체 인민의 일치단결로 승리해나가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연적요구에도 부합되며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을 다같이 고르게 발전시켜나가기야 하는 현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임무에 맞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로선이다.

이 로선이 제시됨으로써 공화국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밝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게 되었다.

김금화

3대혁명을 동력으로 사상리론을 변혁하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사에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뜻깊은 화폭들이 많이 새겨져있다.

그중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홍명희선생과 함께 나무배를 타고 노를 저으시는 사진도 있다.

예로부터 운명을 함께 하며 머나먼 길을 같이 간다는 의미를 《한배에 오르다》, 《한배를 탔다》는 말로 표현하여왔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길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참된 애국의 길에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는 등지로 홍명희선생을 내세워주시고 그의 인생이 민족을 위한 빛나는 생으로 되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정과 사랑이 이 한 폭의 사진에 다 어려있었다.

홍명희선생으로 말하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부터 애국계몽사업과 민족주의운동에 적극 나섰던 지식인이었다.

해방후에는 민족의 영웅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존중심을 지니고 남조선에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1947년 10월에 민족독립당을 결성하고 그 당수로 활동하였다.

주체37(1948)년 5월 6일 력사적인 4월남북선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왔던 홍명희선생을 친히 만나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민족분열의 엄혹한 형세를 판만만 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후대들에게 엄중한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단결만이 민족재생의 길이고 민족통일을 안아오는 길이라는 신념을 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주시었다.

한지맥, 한피줄을 이은 나라의 민족의 절반이 외세에 의해 짓밟히는 참상을 가셔내시려는 뜨거운 애국심이 넘쳐나는 말씀을 새겨안으며 홍명희선생은 수령님의 높은 신 뜻을 받들고 북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워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의지를 가다듬게 되었다.

북조선에 남아 일하고싶다고 하는 홍명희선생에게 함께 손잡고 일하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공화국창건후 내각부수상의 중책을 안겨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그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었기에 홍명희선생은 조국통일사업에 자기의 이름을 뚜렷이 새길수 있었다.

만물이 태양이 있어 존재하고 태양의 따사로운 빛이 있어 이 땅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수 있듯이 민족의 운명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 계시었기에 홍명희선생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통일에국인사로 그 이름을 빛내일수 있었다.

홍명희선생과 나무배를 타고 노를 저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환한영상이 모셔진 사진은 오늘도 말해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생이 빛나도록 보살펴주어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품이 바로 온 겨레가 언저려 참다운 삶의 품이라는것을,

본시기자 리경월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하늘을 믿어도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주체37(1948)년 5월의 따뜻한 봄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동강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는 축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과 인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열려있다.

이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몸소 잡으신 물고기로 어죽이며 승어회를 비롯한 구미를 돌주는 갖가지 로리를 만들도록 하시어 소박한 야외오찬을 마련해주셨었다.

오찬에서 그이께서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음식그릇도

당겨주시고 로리를 권하기도 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정답게 들어주시었다.

이러한 속에 백범 김구가 명천암 주지노릇을 하던 이야기가 나온 바람에 화제는 점차 종교에 대한 문제로 번져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잔을 권하시며 종교인가운데는 우리와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정견과 신앙에는 관계없이 누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는것은 사람들의 자유이다. 그렇지만 하늘을 믿어도 남의

단위, 제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거점!

이 가르침은 지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께서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 보낸 서한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총련지부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는 리유도 지부가 그토록 중요하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사실 모든 사회적운동과 마

나라 하늘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남조선대표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워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석님의 숭고한 뜻에 절대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넓은 도량과 뜨거운 사랑으로

언제인가 조국통일상수상자 선발사업이 한창일 때였다.

조국통일상을 수여할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잠시 시선을 창밖에 보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찬가지로 해외교포운동도 일정 단위를 거점으로 하여 조직 전개되어야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것이다.

총련지부로 말하면 제일조선인운동의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지역단위라고 말할수 있다. 총련지부에서는 동포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애국

민족의 사랑을 받는 통일애국인들중에는 한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하여 반공의 길을 걷다가 잘못 살아가는 시간날과 결별하고 통일애국위업에 헌신한 사람들도 많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의 명단에 그

런 사람들의 이름이 없는것을 보시고 생각이 깊어지셨기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비록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은 련공애국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조국통일상수상자명단에 넣어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새겨안은 일꾼들은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비록 지난날에는 반공의 일선에서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전환을 하여 애국과 통일을 위해 한몸바쳐 일한다면 관용으로 대하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본시기자

자욕자욕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자욕자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전에서 지부를 강화하는데 전 조직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고나서 지부의 거점역할을 높이는데서 너는 중요한 문제들을 주체의 휘황한 빛발로 환히 밝혀주시었다.

민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심한 스승의 손길로 총련지부위원장들의 사업을 이끌어주시는 그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는 그의 일꾼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령도자의 슬하에서 해외교포운동의 또 하나의 보검을 찾아냈을 때 행복감을 찾아들었다.

이때부터 총련에서는 사업중심을 지부강화에 두고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애국과업을 수행하는데로 력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본시기자